



사회로 통하는 지름길 제대군인 지원센터

- 취·창업지원**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 · 면접 클리닉 등
-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변화관리, 특강, 창업워크숍 등
- 직업훈련**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 멘토링 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필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중앙로 172, 6층
(근화동)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군 인 친 구
1666-9279
전국 10개 센터 대표번호

리:스펙 제대군인

05 Vol.207
2023 May



즐거움

나의 즐거움
아무튼 행복

생각 한 스펀

잘나가는 기업들의 비밀,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Scale-up, Skill-up,
효율을 높이는 회의의 기술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 의 즐 거 움

아 무 튼 행 복

Pleasure

오늘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잠들기 전 하루를 훑아보며 일상 속 기쁨의 장면들을 되새겨봅니다.
걷기 딱 좋은 싱그러운 계절을 만끽하며 모처럼 여유로웠던 출근길이거나. 묵혀둔 숙제를 끝내는 마지막 문장.
치킨에 탄산 한 모금. 그리고 강아지와와 밤 산책. 크건 작건 즐거움의 순간들은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마주하는 하루치의 피로감은 그저 잘 견뎌내기에도
딱딱하기만 합니다. 소셜가 휴 월폴은 '행복은 사소한 일에서 곧바로 즐거움을 알아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저마다의 기쁨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즐기는 일. 소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순간들을 모아 행복의 단단한 심지를 만들어 갑니다.

<리:스펙> 제대군인

05 Vol.207
2023 May

즐거움

나의 즐거움
아무튼 행복

통권 207호

발행일 2023년 5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처

발행인 박민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기획·디자인·인쇄 동아문화사(053-252-9060)



www.facebook.com/mpvakorea



twitter.com/hun2day



www.youtube.com/user/mpvakorea



blog.naver.com/mpvalove



www.instagram.com/bohun_story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1

Find 業 VISION

02

테마읽기

나의 즐거움

아무튼 행복

06

생각 한 스펀

잘나가는 기업들의 비밀,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

___ 한재동 브랜드 전문 에디터 / 마케터

08

라이프 체인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퓨전떡 연구소 '아이엠떡'

___ 김태언 예비역 해군 중사

12

함께 그려본 내일

자연과 하나 되어 친근하고 편안한 사무공간을 창조한다

___ (주)포머스

16

이런 직업 처음이지?

지금은 반려동물 전성시대!

___ 반려동물 관련 직업



12

Find 業 LIFE

18

직업처방전

'타협 없는 안전'으로 현장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진다

___ 광기관 예비역 해군 원사

22

기업이 알고 싶다

일상에서 꽃을 사는 문화를 만든다

___ KUKKA

24

굿 JOB 굿 LIFE

정확한 직업관은 하고 싶은 일을 잘하게 만든다

___ 고석훈 예비역 육군 대위

26

슬기로운 직장생활

Scale-up, Skill-up,

효율을 높이는 회의의 기술

28

성공 길라잡이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 혜택, 알고 계신가요?



18

Find 業 HAPPINESS

30

금쪽상담소

우리 아이 금융교육 이것이 궁금하다

___ 『우리 아이 주식부자 만들기』 저자 박현아

32

접속! 직업월드

더 나은 우리들의 삶을 만드는 건축사와 기자를 연가하다

___ 배우 이기우

34

차이나는 클라쓰

함께 즐겨요 도란도란 취미생활 소모임

취미, 소모임 애플리케이션

36

힐링온더트립

끝없이 걷고 또 걷고 싶은

눈부신 섬, 거제

40

나의 군대일지

사랑이 꽃피는 병원

___ 최창복 예비역 육군 소령

42

해피투게더

온 가족이 함께 운동하자!

2인 1조 스트레칭

#네이버웹툰 #무신사

잘나가는 기업들의 비밀,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

글 **한재동** 브랜드 전문 에디터 / 마케터

한국의 웹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웹툰의 기준이 되어버린 글로벌 플랫폼 '네이버웹툰'과 패션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등극한 '무신사'의 비밀을 아시나요? 바로 '덕후'의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네이버웹툰과 무신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 만화 덕후가 사장입니다. 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의 김준구 대표는 가장 성공한 만화 덕후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개발자로 네이버에 입사한 김준구 대표는 만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웹툰 부서에 차출되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웹툰이라는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때여서, 기존 종이 만화책을 스캔해서 서비스로 제공하던 시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경쟁사였던 '다음'에서는 '순정만화' 등이 인기를 끌어 후발주자였던 상황이었지요. 그러다 2006년 '도전 만화'라는 신인 작가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지금의 네이버웹

툰의 초석이 되어 주는 '마음의 소리'를 연재하게 됩니다. 그때 마케팅 비용이 없어서 김준구 대표가 사비를 들여 경품을 내걸었다는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어요. '마음의 소리'를 통해 신인 작가가 대성공하는 것을 목격한 콘텐츠 업계의 인재들은 네이버웹툰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점점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어 독자와 작가 모두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2017년 웹툰과 웹소설로 콘텐츠 업계를 평정한 네이버웹툰은 분사하여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1억 8천만 독자가 사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되었어요. 웹툰은 1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연재되고 있으며, 웹소설은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김준구 대표는 미국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 1위와 연재하는 웹툰 '로어 올림푸스'의

수많은 IP를 바탕으로 미래의 디즈니를 꿈꾸는
네이버 웹툰 - 출처 연합뉴스

NAVER WEBTOON



네이버웹툰 - 출처 네이버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 - 출처 연합뉴스

미국 메이저 3대 상 석권을 기념하여 네이버웹툰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어요. 이제는 웹툰 플랫폼을 넘어 넷플릭스를 상대하고, 디즈니와 같은 IP를 가진 글로벌 톱티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비스 담당자에서 대표까지 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김준구 대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하죠. 그것이 네이버웹툰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보입니다.

●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에서 No.1 패션 플랫폼이 되다, 무신사

무신사의 시작은 신발덕후 고등학생이 만든 커뮤니티였습니다. 그 커뮤니티의 이름은 바로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바로 무신사였어요. 무신사는 연간 거래액 2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패션 플랫폼의 시작이 사진 커뮤니티라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무신사 조만호 의장이 있습니다.



무신사 조만호 의장 - 출처 무신사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인터넷 서비스 프리챌에 스니커즈 사진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회원 수가 많아지자 프리챌에서 벗어나 '무신사 닷컴'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무신사 닷컴의 아이템과 자체 화보 등 패션 콘텐츠를 가지고 '무신사 매거진'을 발간합니다. 무신사 매거진은 국내 최초의 온·오프라인 동시 발간 패션지였어요.



무신사 테라스 - 출처 무신사

M

MUSINSA

당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마케팅 채널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신사 매거진은 브랜드 홍보와 룩북 등 콘텐츠 제작을 이어갔지만, 수익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신사가 주목한 것이 바로 유통입니다. 2009년 드디어 무신사 스토어가 론칭돼요.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진심 어린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와의 상생과 패션덕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국내 패션 온라인 커머스라는 뚜렷한 정체성으로 충성 고객층이 형성됩니다.

무신사는 이후 빠르게 몸집을 키워 나가요. 플랫폼 거래액이 2013년 100억 원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1천억 원, 2020년에는 1조 원을 넘었습니다. 2021년에는 29CM 등 인수·합병한 커머스 사이트를 포함해서 거래액 2조 원을 돌파했어요. 스트리트 패션으로부터 여성복, 아동복, 골프, 스포츠웨어, 명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보유한 국내 패션플랫폼 1위 기업이 됩니다.

패션 덕후가 패션업계와 함께 키워가는 플랫폼이라는 무신사의 핵심 가치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어요. 무신사는 플랫폼 입점 브랜드에 대한 상생 정책과 신진 패션 디자이너 및 패션 스타트업 지원 등에 적극적입니다. 이제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나아가려는 'K패션'의 선두 주자 무신사의 앞날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



국내 1위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PB(Private Brand) 무신사 스탠다드 - 출처 무신사

세상 어디에도 없는 퓨전떡 연구소 '아이엠떡'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님달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조상님들은 얼마나 떡을 좋아했던지 그 무서운 호랑이도 당연히 떡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오죽하면 가장 편안한 일을 칭할 때 ‘누워서 떡먹기’라고 할까? 하지만 세월따라 많은 것이 변해가듯 떡이 차지하던 자리는 다른 먹거리들에 하나둘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전통떡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퓨전떡 연구소의 김태언 예비역 중사를 만나보자.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영상 황지수



QR코드로 접속하면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언
예비역
해군 중사

Kim Tae-eon



갓가지 색깔과 모양의 양증맞은 떡들이 매대 위에 놓인 진열장 속에 먹음직스럽게 개별포장되어 놓여있다. 동네시장에서 흔히 보는 떡집 분위기가 아닌 제과점에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빵과 쿠키를 보는 느낌이다. 매대를 지나 떡집 안쪽으로 들어서니 하얀 위생 모자와 하얀 마스크를 끼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떡을 만드는 곳에서 분주히 돌아다니며 작업에 한창인 김태언 사장이 보인다. 멀리서 바라보니 문득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연상된다.

삼십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떡집을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원래 이곳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전통떡을 만드는 떡집이었어요. 저는 떡집을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저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았는데 떡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해오던 것처럼 전통떡을 만들어서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생활 5년 차에 전역을 하고 전국의 떡집을 돌며 새로운 떡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수련기간을 거쳤죠. 그리고 2020년에 상호를 아이엠떡으로 변경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퓨전떡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떡은 모두 59가지 종류인데 지금도 계속 새로운 떡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편의점이 없던 시절 새벽에 골목을 나서면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이 목욕탕과 떡집이었다. 그만큼 떡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바지런도 떨어야 하고 떡을 만드는 과정에 체력도 많이 소모된다. 하물며 지금은 그 가지수가 59가지나 된다고 하니 각각의 떡마다 만드는 공정도 다 다를텐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많이 바쁘죠. 떡의 종류도 많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떡과 주문받은 떡을 모두 만들어야 하니까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주문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보통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오전 시간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떡과 전날까지 주문받은 떡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택배로 발송해야 하는 물건은 발송을 합니다. 보통 7시~8시쯤 되면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떡이 나옵니다. 중식 후 오후에는 다시 오전 시간 동안 주문이 들어온 떡을 작업해서 발송합니다. 워낙 체력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7시쯤 퇴근하면 헬스장에 가서 몸을 만듭니다. 취침은 보통 11시쯤 하고요. 일요일 오후만 휴무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평상시에 그렇구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밤샘은 기본이죠. 휴식은 생각도 못합니다.”

떡집을 시작하기 전 부모님의 가게를 놔두고 전국을 돌며 떡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 이야기나 힘든 일과 중에도 체력단련을 위해 매일 헬스장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작은일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성격이 배어난다.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만큼 그가 만드는 떡의 제조과정도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떡을 만들 때는 항상 제 가족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재료를 엄선하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먹거리이다 보니 특별히 위생에 신경을 써서 모든 제품을 철저히 개별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일을 하면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을까 궁금해진다.

“즐거움이요? 저는 지금도 떡을 만들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떡을 만드는 그 자체도 즐겁고, 새로운 떡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도 즐겁고, 또 제가 만든 떡을 먹고 맛있어 할 고객분들을 생각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떡에 둘러싸여 하루종일 떡만 생각하는 그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궁금해졌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새로운 떡을 계속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전통 디저트인 떡을 알리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탈리아의 마카롱이나 영국의 샌드위치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저만의 떡을 만들고 싶습니다.”

젊고 야무진 떡집 사장님의 당찬 목소리가 결코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떡집을 운영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서 짧은 기간에 이룬 그의 성과 때문인 것 같다. 떡을 좋아하던 떡집 아이에서 전통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계에 널리 알리는 주인공으로서의 김태언 사장의 미래에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머지않아 사회에 합류할 예비 제대군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부탁했다.

“각자 저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역 후 바로 시작할 일이 아닌 인생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큰 그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다 보면 준비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가 정해지고 전역 후 먼저 해야 될 일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직지원 기간을 이용하여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몸소 실천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Kim Tae-eon





자연과 하나 되어 친근하고 편안한 사무공간을 창조한다 (주)포머스

독자적인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
사무용가구 전문기업 포머스는 대구·경북지역 조달업체 중
1위를 달리며 새로운 첨단 오피스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Q. 회사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호 본부장 (주)포머스는 사무용가구 전문 기업으로서 “자연과 하나 되어 친근하고 편안한 사무공간을 창조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창의적인 실용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무환경의 변화에도 최상의 사무환경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1988년 동양사무가구로 출발하여 지금은 중소기업이지만 개발팀, 연구소 등 대기업 못지않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제품, 품질인증을 위한 자체 실험실을 보유하고 성능 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 조달업체 중 1위를 선도하는 한편, 제품의 품질 면에서 대내외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Q.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호 본부장 저희 회사는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를 만드는 소재도 화재에 취약한 목재가 아니라 준불연 합판보드를 개발하여 모든 사무용 가구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를 겪으며 전 국민이 위생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었는데 멸균합판을 개발하여 식탁이나 공용건물의 책상을 제작하는 등 단순히 디자인과 편리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소재 자체의 기능을 개선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기원 이사 저희 회사는 이미 대내외적으로 많은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더욱 발전하며 첨단 오피스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제대군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www.fomers.co.kr



Q. 제대군인을 채용하게 된 계기와 현재는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최호 본부장 제대군인은 군에서 5년 이상 복무하였기에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고 책임감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험은 적지만 꾸준히 채용을 진행해왔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강점으로 회사에서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앞으로도 큰 기대가 됩니다. 2022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선발된 만큼 제대군인들의 전직지원을 위해 저희 기업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대리 현재 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제대군인은 총 7명이며 인적 자산, 물적 자산을 관리하는 관리본부에서 인사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이곳에 입사한 계기와 근무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해 주세요.

박은주 대리 군에서 인사행정, 자산관리 업무 등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적성에 맞다고 생각되어 관련 분야 채용을 위해 찾아보던 중 제대군인 전직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지금의 회사를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 납품했던 실적을 보고 군에서 사용했던 책상, 캐비닛 등으로 회사를 먼저 만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웠고 또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차별화된 기술로 매년 가파른 매출 상승을 이루는 동종업계 상위권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회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필요한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Q. 군복무 경험이 회사 생활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끼칩니까?

박은주 대리 군에서 부대를 자주 옮기고 여러 보직을 맡으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마다 맞닥뜨린 한계점을 뚫었던 경험들이 늘 '할 수 있다, 잘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의 근원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 나 하나의 개인보다는 소속된 집단, 회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Q. 제대군인 채용 후 느끼는 장단점은?

강기원 이사 군생활을 통해 익힌 정신력으로 조직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극복하려는 의지력이 다소 강하기는 하나 반대로 군생활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져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호 본부장 군에서 자주 쓰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처럼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무 중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때도 정면돌파하며 기지를 발휘하고 있고, 엄격한 규율, 규칙 안에서 지내온 시간이 있는 만큼 사내 규칙을 잘 준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적인 재원으로 기대가 큼니다.



Q. 전역을 준비하는 제대군인들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강기원 이사 내가 갈 회사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전역 전에 조금 더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 전에는 최대한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야 하지만 일단 입사를 한 후에는 나를 잊고 전적으로 회사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회사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입사 후에는 힘들더라도 적응해야 합니다. 전역해서 직장생활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군에서의 초임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최호 본부장 틀에 박힌 조직과 자유분방한 조직의 차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군에서 어떤 보직과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도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사회 초년병의 입장에서 배우는 자세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와 달리 사회는 무한 경쟁하는 곳입니다.

박은주 대리 전직을 준비하며 자격증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하지만 희망하는 산업 직종에 대한 이해, 기업에서 이뤄지는 부서별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라든지 프로세스가 군과는 많이 다릅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해되면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Companion

지금은 반려동물 전성시대!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뜻의 신조어 펫팸족(Pet-fam)이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은 우리 삶 가까이에 녹아있다. 반려동물 전문 훈련사부터 패션디자이너까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반려동물 관련 직업들을 소개한다.

반려동물 관련 직업

참고 워크넷 한국직업사전, 커리어넷 미래직업, 커리어넷 해외신직업



'개(犬)과천선' 돕는 맞춤형 전문가

반려동물 훈련·상담사

<TV 동물농장>, <개는 훌륭하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아 주는 TV 콘텐츠가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반려동물 훈련·상담사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훈련·상담사는 반려동물이 끊임없이 짖거나, 아무 곳에서나 배설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바로 잡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는 일을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전문 훈련·상담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관련 자격 및 전공

반려동물 훈련·상담사와 직접 관련된 국가 공인 자격은 없지만 민간등록 자격으로 애견 훈련사,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반려동물 관리 전문가, 반려동물 관리 지도사, 반려동물 전문가, 반려동물 훈련사, 반려동물 훈련 지도사 등이 있다.

반려동물의 장례를 책임지는

반려동물 장의사

반려동물 장의사는 반려동물의 장례와 관련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반려동물 장례전문가이다.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사체 이송, 장례식 과정의 연습과 입관 절차를 다루는 예식 그리고 화장로를 이용한 화장의 3단계로 진행된다. 장례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2008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장묘업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반려동물 장의사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관련 자격 및 전공

학력 등의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반려동물이나 장례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유리하다. 또한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특성을 알고 있으면 향후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새 옷 입고 개성 있는 '댕댕이'로

반려동물 패션디자이너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반려동물을 쉬이 만나게 된다. 겨울엔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는가 하면, 비 오는 날엔 비옷을 입고 산책을 즐기는 등 반려동물의 패션도 다채로워지고 있다. 반려동물 패션디자이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의상과 소품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직업군이다. 원단 및 부속품을 선택하여 견본의상을 제작하는 등 일반적인 옷을 만드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전기, 피부병, 물어뜯기, 입히고 벗기는 방법, 배변 등 반려동물 의상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관련 자격 및 전공

의류 제작에 필요한 패턴 제도와 재봉 등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디자인 감각을 겸비해야 한다.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패션 경향과 트렌드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반려동물에 다양한 체형과 특성을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

위기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다

동물보호보안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동물에 대한 애정이 부족해지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버림받는 동물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집을 잃어 버린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동물보호보안관은 동물을 방치하거나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동물을 구조하고, 상황에 따라 동물 학대자를 경고하거나 고발하여 법적인 조치를 한다. 일부 동물보호보안관들은 지역구와 계약을 맺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애완동물 구조나 포획을 요청하면 현장에 출동해 구조 등의 일을 맡기도 한다.

관련 자격 및 전공

사회단체 활동가, 경찰, 수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협동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과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면 좋다.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동물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호보안관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5



Animal



‘타협 없는 안전’으로 현장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진다

곽기관 예비역 해군 원사

느리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항상 남들보다 한 걸음 뒤처졌다고 생각했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걸어 온 30년의 군생활이
새로운 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겸손한 마음과 친절한 미소로
힘든 근로현장을 밝히는
곽기관 건설보건관리자를 만났다.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Mentee

멘토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Mentor

저는 1992년 해군 부사관 141기로 입대하여 30년간 의무부사관으로 복무하며 부대장병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며 해군함정과 해병대에 파견되어 성실한 군생활을 하였고 21년 8월에 제대하여 22년부터 강서구 등촌 재건축 1구역 현대 힐스테이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보건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곽기관이라고 합니다.

Mentee

건설보건관리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Mento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건축 공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상태 이상 유무 확인, 현장의 소음과 진동 파악, 기타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MSDS(유해화학물질)을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하고 직업에 따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점검과 건강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Mentee

건설보건관리자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Mentor

군생활을 하며 미리 알고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군 의무부사관으로 근무할 때는 그저 제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자 응급구조사, 산업위생기사, 폐기물기사, 소음진동기사 등을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21년에 원사로서 명예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야 2022년 2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가 법적으로 선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보훈처의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지원하는 보건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도 지원받은 덕분에 이렇게 건설보건관리자가 되었습니다.

Mentee

전역 후 준비하셨는데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취업에 성공하셨는데 비결이 있습니까?

Mentor

저는 남들보다 앞서나가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고자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대학교도 남들보다 좀 늦게 군복무 중 수능시험에 응시하여 1996년 서울 인덕대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하였으며 1998년에는 군 위탁 장학생으로 을지대학교 방사선과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군생활을 충실히 하고자 배우고 익힌 지식과 또 군에서 의무부사관으로서 보건예방활동, 의무보급, 건강상담 등을 30년간 한 경험을 현대건설에 인정받아 건설보건 관리자로 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Mentee

건설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과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Mentor

건설보건관리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봉사정신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합니다. 현장에는 공장별로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조금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 깊게 현장상황과 근로자를 관찰하고 파악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Mentee

일을 하는 데 있어 나만의 원칙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Mentor

현대건설의 2023년 경영방침은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건설리더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타협 없는 안전을 중시하고 있는데 저도 작업자들의 안전한 퇴근길을 위해 타협 없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현장 근로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주변의 주민들을 상대할 때도 '상상 이상의 고객감동'이라는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길의 안전을 지키는 봉사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도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Mentee

전역 후 취업에 도움받은 곳이 있나요?

Mentor

국가보훈처의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취업을 위한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물론, 보건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도 지원받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Mentee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점도 많으실 텐데요. 직업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Mentor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무래도 옥외작업이다 보니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와 바람도 맞아야 하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넓은 작업장을 걷다 보면 내 스스로의 건강도 좋아지는 것은 덤입니다.

Mentee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Mentor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보건강사를 준비하여 군부대, 기업, 공공기관의 다양한 곳에서 안전보건 문화를 정착시키는 찾아가는 안전보건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자기개발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기술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건안전전문가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Mentee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은 군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Mentor

군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회에서는 군에서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새로운 낯선 일을 배우는 것보다는 군대에서 해오던 병과 업무나,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쌓아오던 분야에 관련한 공부를 계속해서 사회에 진출할 때는 그 경험을 연결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그에 관련한 자격증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경력으로 이어져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보건관리자

산업현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진다. 선임자격은 의사, 간호사 이외에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을 소유하여야 한다.

일상에서 꽃을 사는 문화를 만들다



특별한 날을 더욱 뜻깊게 만들어주는 꽃이 이제는 보통의 나날이 된다. 2주에 한 번 아름답고 싱싱한 제철 꽃이 집으로 배송되는 꽃 정기 구독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꽃을 잡지처럼 구독하는 서비스로 일상에서 꽃을 즐기는 문화를 이끌어가며 화훼업계의 큰 바람을 일으킨 'KUKKA'를 만나보자.

글 서인혜 사진 KUKKA 제공



‘KUKKA’라는 이름이 신선하다. ‘KUKKA’는 어떤 회사인가?

KUKKA는 핀란드어로 ‘꽃’을 뜻하는 말로, ‘왜 우리는 꽃을 즐기는 문화가 없을까?’라는 호기심과 궁금증에서 시작된 비즈니스다. 전통적인 판매 방식에 머무르는 한국의 화훼 산업을 탈피하고 일상에서 즐기는 꽃 문화를 전파하고자 국내 최초로 온라인 꽃 정기구독 서비스를 선보였다. 정해진 기간 동안 2주, 4주에 한 번 구독자가 지정한 곳에 제철의 신선한 꽃을 배송해 주고 있으며, 서울·경기지역은 당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렇게 현재는 전국 6개 오프라인 매장, 60만 명 회원들이 꽃을 일상에서 사고 즐기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처음 창업을 시작했을 당시 화훼산업에 대해 지식도 없는데다가 국내에 참고할 만한 브랜드와 사례가 없어 고생을 많이 했다. 꽃 수급 과정부터 유통까지 노하우가 없어 직접 꽃 시장을 돌아다녔지만 화훼업계 상인과 투자자 모두 반응이 냉랭했다. 돈 5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꽃을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구독자에게 돈을 먼저 받고 시작했기에 초기 투자금은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또, 돈이 들지 않는 SNS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여 2030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어 ‘KUKKA’의 가치를 증명받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전국으로 신선한 꽃을 배송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되나?

KUKKA는 전국 모든 지역을 타켓으로 꽃 품질을 일관되게 배송한다는 점이 성공으로 이끈 요인 중 하나다. 전국의 농장과 협업하고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국 농가와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꽃의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 전 유통 과정을 콜드체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작업장에는 전체 공간의 온도를 15도로 유지하고, 100평 규모의 저온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꽃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플라워 박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상태로 꽃을 배송한다.

‘꽃의 일상화’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꽃을 누구나,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일상재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플라워클래스는 3~4만원대의 부담 없는 가격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트에서 채소류를 사듯 다양한 꽃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파머스마켓’ 소품도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을 대상으로 임직원들의 기념일에 꽃을 보내주는 서비스인 ‘꾸까파트너스’, ‘꽃과의 공존’ 전시회,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꽃으로 희망과 응원을 전하고자 힘쓰고 있다.

창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조언해 준다면?

창업 아이템을 고르는 것보다 기업의 가치를 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KUKKA를 창업하기 전 화장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글로시박스’를 창업했었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비전을 세워놓지 않아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끄는 데 부족했다. 기업의 가치와 브랜드가 없다면 고객들도 지속적으로 물건을 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직원들도 일하는 데 가치를 찾지 못한다. 그렇기에 명확하게 기업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KUKKA’의 향후 방향은?

단순히 꽃을 파는 기업이 아닌 화훼산업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다. 꽃을 형상화한 회사 심볼을 만들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이인 서울 광화문점은 꽃을 작품처럼 전시하고 와인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앞으로도 꽃과 관련한 여러 사업으로 고객들에게 다채로운 하루를 선사하고 싶은 바람이다. 커피 하면 스타벅스를 떠올리듯 꽃 하면 KUKKA가 떠오를 수 있도록 화훼업계의 대표 브랜드가 되고자 한다. ☎



정확한 직업관은 하고 싶은 일을 잘하게 만든다

2022년 제대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 공모전 장려상(요약본)

글 고석훈 예비역 육군 대위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는가 고참 대위가 나이 많은 막내가 되기까지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순간일지라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본인의 복무신조이자 삶에 대한 가치관이다. 그렇게 거룩
한 말과 자신감 넘치는 행동으로 10여 년을 복무해온 나는
뜻하지 않은 계기로 소령 진급과 멀어지게 되었고, 자부심
이 강했던 나는 후배들에게 시쳇말로 쪽팔리기 싫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하며 돈을 벌
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직업 선택의 기
준은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돈’이다. 당시 직업
선택의 기준(나름 중요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한)은 다음과
같다.

- 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잘은 못하지만 잘하고 싶은 일, 무
조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 ② 위 3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은 하늘이 내린 직
업이다. 허나 그러한 천직을 가진 사람들을 아직 주변에
만나보지 못했다. 드물다는 것.
- ③ 그렇다면 나에게 좋은 직업이란 잘할 수 있는 일보다 무
조건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하고,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을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노력 자체가 즐
거울 것이며 괴롭지 않을 것이다.
- ④ 반드시 이 일이어야만 하는가. 다른 일을 하면 두 배를 벌
수 있어도?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된다. 아니 거들떠보지도
않아야 한다.
- 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을 때, 그 일이 싫어하는 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가?
- ⑥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인과 가정에
안정을 비롯하여 타인과 세상을 나름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 ⑦ 마지막으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
는가(사실 이게 가장 중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가
장은 껍데기니까.

위 7가지 기준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판단한 결과 ‘차량정
비사로 귀결되었다. 당시 첫째 아들이 태어나 육아휴직 중
으로 낮에는 열심히 똥기저귀 갈고 저녁이 되면 경주 ~ 울
산 간 100km 구간을 매일같이 왕복하며 자동차직업학교
를 다니기 시작했다. 내 집념에 감탄한 한 선생은 나에게
“해볼 테면 폴리텍대학을 가서 제대로 배워라. 거긴 선생이
아니라 교수가 가르친다. 석훈 씨는 그릇이 너무 커서 여기 직
업학교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가르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직업학교 수료 후 ‘자동차정비기능사’를 취득한 나
는 이왕 시작한 것 끝까지 해보자는 심산으로 직업학교 선
생(지금은 나의 은인이시다)의 조언대로 폴리텍대학 달성
캠퍼스 문을 두드렸다.

우수한 성적 및 산물과 함께 폴리텍대학을 졸업한 나는, 유
사직무 분야인 건설기계정비 및 운전까지 섭렵하여 늦게
시작한 핸디캡을 실력과 스펙으로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대구 · 경북에서 가장 기술과 매출이 좋다는
남구미 기아서비스센터 AS팀의 막내로 취업하게 되었다.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인격을 갖춘 ‘군인형 기술인’ 고석훈 이 정비공장 막내에서 제2의 고향에 금의환향하기까지

하루 사이에 공장 막내가 되어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바빴
다. 나이 많은 신입의 험난한 첫날이 시작된 이후 일기를 쓰
기 시작했다. 하루에 욕을 10번 먹더라도 단 1개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그날은 성공한 날이라 의미를 부여하며. 그렇
게 쓰기 시작한 정비일기에는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는 방
법부터 폭언, 욕설, 인격모독을 당해 취해서 울었던 기록까
지 정비 노하우와 인간 고석훈의 기록이 담겨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지만 나름 보람 있게 보내고 있던 찰나 내
군 생활 마지막을 살아온 고향과 같은 육군 50사단에서 차
량정비담당(8급)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그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김치국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가슴이 뛰고 동공이 확장되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긴
내 자리대! 아니 나를 위한 자리대!”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
아있는 고향 같은 근무지에서 하고 싶은 일을 업으로 삼아
다시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삶에 있어 복된 일
인가. 내가 좋아하는 차를 나와 고객을 위해서가 아닌 군을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수기는 지면 관계상 내용이 다소 요약되었습니다.

위해서, 그리고 아직 뽕속까지 남아있는 군인으로서의 기질
을 전투행동이 아닌 진단과 정비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구
현하여 부대와 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
다는 사실 자체가 참 기뻐다. 군이 날 다시 불러준다는 반가
움은 제대군인에게 있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날
부로 잠시 덮어두었던 책을 다시 펴기 시작했다.

그렇게 군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한 결과 90점(합
격 평균점수 78점)을 취득하여 간간한 군무원 필기시험에
서 고득점을 획득하였고,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합격하
여 내 고향 50사단에 작전과장 대위 고석훈이 아닌 차량정
비담당 8급 고석훈으로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군무원이 있던 사람들이 놀래더라. 자동차과 출신이었냐고
혹시 수송병과, 병기병과였냐고. 혹시 입대 전에 정비했었
냐고. 군무원 선발팀에 아는 사람 있냐고. 참나 전부 다 아니
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반드시
그 일이어야 한다며 절박하게 밀어붙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니, 나의 집념과 차량 관련 직무지식에 두 번 놀
래기도 했다. 혹자는 부정적이었다. 현역 출신이라 뭔가 뒤
에서 메리트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한 말을 들으면 난 조용
히 내 필기시험 점수를 보여준다. 채점하는 컴퓨터가 고석
훈이 대위인지 장군인지 현직자인지 어찌 알겠는가. 내가
작성한 답안이 맞나 틀리나만 판단할 뿐인걸.

여하튼 대위 고석훈은 그렇게 8급 고석훈이 되어, 비록 일
천하고 부족하지만 절박하고 뜨겁게 익힌 경력과 지식에
더불어 현역 시절 익힌 군조직의 특성과 업무성향을 조합
하여 그냥 차만 잘 고치는 군무원이 아닌, 군경력만 있는 군
무원이 아닌, 기술과 군을 모두 아는 군무원이 되어 50사단
수송중대의 代정비반장으로서 정비뿐만 아니라 연간정비
계획, 예산관리, 수리부속 공구관리, 폐품관리 등 제반 행정
영역까지 주도하고 있다. ㉞



Scale-up, Skill-up,

효율을 높이는 회의의 기술

정리 편집실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을 대표하는 것은 회의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좋지만, 의미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회의로 일할
시간을 뺏겨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간을 아끼는 회의 노하우를 알아보고 능률을 올려보자.



회의 전

☑ 회의 일정과 자료는 사전에 공유하기

안건과 장소, 시간을 사전에 공유해야 사전에 안건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회의에는 꼭 필요한 사람만 참석하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회의 의사 결정으로 업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참석해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회의
결정에 추진력이 생긴다.

회의 중

☑ 명확한 목표를 가지기

회의의 가장 큰 목적은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회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모색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



☑ 회의 시간은 30분으로 정례화하기

회의 시간을 간소화하거나 끝나는 시간을 정해두면 사담이나 주제 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회의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다.

☑ 민주적인 규칙 정하기

참석자 모두 편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의사 발언 방식에 물을 정한다면 의견 제시와
회의 결과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무엇보다 참석자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의 후

☑ To-Do List 중심으로 회의록 작성하기

발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참석자 모두에게 공유하고 결정된 사안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혁신을 만드는 회사의 회의 비결



현대카드 '안티 파워포인트'

불필요한 문서 작업을 줄이기 위해 파워포인트 사용을 금지한다. 엑셀이나 손으로 직접
그리며 회의를 진행해 화려한 비주얼보다는 내용과 본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 좋다.

아마존 '피자 두 판 규칙'

회의에는 피자 두 판 나눠 먹을 수 있는 규모의 인원만 참석하고 회의 시작 전 30분간
소리 없이 자료를 읽는 시간을 가지면 전체 회의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나영석 사단 '놀이터 회의'

브레인스토밍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메모도, 주제도 없이 놀이터에서
친구끼리 수다를 떨 듯 이야기함으로써 부담없이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어 좋다.

실리콘밸리 '해커톤'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24시간 이상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짜고 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작하는 방식이다.

제대군인 생활안정지원 혜택, 알고 계신가요?



생활안정 지원 혜택



국가보훈처에 '제대군인지원 등록'을 마쳤다면,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과 별도의 다양한 혜택을
보훈관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보훈특별 고용명령)



20인 이상(제조업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특별고용 추천

일반(기능)직 공무원 및 군무원 특별채용 추천

※ 전역 후 기간 제한 없이 총 3회까지 지원

주택 우선공급



공공 및 민영 아파트 분양 · 임대 공급물량 중 제대군인
특별공급분

※ 복무기간 등이 고려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 지원 규칙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대부지원



주택 구입(신축) · 임차, 사업, 농토 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등 목적

※ 한도액: 300 ~ 8,000만 원
[연리 2.9 ~ 3.9%, 상환기간 3 ~ 20년]

※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신용관리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교육지원 (본인)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수업료의
50%까지 보조

※ 전역 후 3년 이내에 입학 또는 복학한 사람

※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외

교육지원 (자녀)



고등학교 취학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생활수준조사 결과 국가보훈처장 고시
기준금액 이하인 가정

※ 보훈관서에서 발행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교육기관에 제출

의료지원



보훈병원 -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군병원 - 요양급여 무료, 비급여 50% 감면

※ 요양급여 항목 중 MRI / CT, 내시경은 진료비의
50% 징수

국립묘지 안장지원



국립현충원 - 20년 이상 복무자
국립호국원 - 10년 이상 복무자

※ 현충원 및 호국원 모두 부부합장 가능

※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에서 안장 신청

우리 아이 금융교육 이것이 궁금하다

글 박현아 『우리 아이 주식부자 만들기』 저자,
재테크 유튜브 채널 '알고tv' 운영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입학 앞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얼마 전, 친구는 용돈을 받는다며 돈에 관한 관심을 보이는 중인데, 아이와 돈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일찍부터 돈 애기를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애들 앞에서는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던 부모님 손에서 저도 자랐어요. 어른이 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자신의 자녀가 ‘돈’만 밝히는 속물로 자랄까 하는 걱정도 앞섰지만, 아이 앞에서 솔직한 돈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힘들어 ‘피하기’ 급급했기 때문이란 걸요.

아이와 함께 ‘돈’에 대한 대화를 할 때 핵심은 ‘돈 걱정’이 아니라 ‘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부터,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 보는 거죠. 돈은 필요한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고, ‘보관’할 수도 있고, 또한 ‘가격’을 매겨 물건의 ‘가치’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일부는 ‘세금’이란 형태로 정부에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생활 속 대화를 통해 하나씩 풀어내 보는 거죠. 아이가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아빠, 엄마 연봉은 얼마야?’ 등의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사실대로 대답하는 게 좋아요. 특히 ‘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일수록, 부모를 늘여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열심히 일해 낸 자산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성공과



건강한 절약과 소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돈에 대해 균형 잡힌 대화를 나눈다면, 돈 이야기를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결코 돈만 밝히는 속물로 자라지 않을 거예요.

행복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건강한 절약과 소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돈에 대해 균형 잡힌 대화를 나눈다면, 돈 이야기를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결코 돈만 밝히는 속물로 자라지 않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데요. 아이가 말하길 카드를 들고 다니며 쓰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전식 현금카드는 언제부터 쓰는 게 좋을까요?

나이가 어릴수록 ‘돈’의 소중함이나 용돈의 필요성을 느낄 기회가 드물죠. 특히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돼.’라는 사랑 표현이 오히려 그런 기회를 빼앗기도 하고요. 용돈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저학년은 일정 액수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경제관념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해요. 한 주 동안 쓸 수 있는 돈의 감각을 익히고 소비 계획을 세우며, 더 큰 것을 위해 기다리는 ‘만족 지연의 과정’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또한 용돈을 책정할 때, 학년 + 1~2 만원 주면 충분해요. 예를 들면 1학년은 일주일에 2~3천 원, 2학년은 3~4천 원 정도가 되겠죠. 1~2학년 때부터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스스로 용돈을 관리해 봤다면, 5~6학년 때 충전식 현금카드를 사용 해봐도 좋아요. 계획에 맞춰 소비하는 습관은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 현금으로 받은 용돈을 아이 스스로 충전하고, 잔액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얼마 전부터, 일주일 용돈으로 만 원씩 주기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다 쓰고 와서는 몇 번이고 더 달라고 하는데요. 용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을까요? 용돈 기입장을 적는 게 도움이 될까요?

보통 용돈을 받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다 쓰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구체적인 4가지 팁을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 가격 비교해보기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다이어리를 살 때, 문구점에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사는 것이 더욱 저렴하다는 것. 휴지 같은 생활용품은 날개보다는 묶음으로 살 때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격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둘, 기회비용 알려주기

돈이 한정되어 있을 때, 하나를 얻으면 다른 건 포기해야 해요. “슬라임, 포켓몬 카드, 스티커, 이 모든 걸 사려면, 7,500원이 필요해. 하지만 네가 쓸 수 있는 용돈은 5,000원밖에 없어. 슬라임을 선택하면, 나머지 두 개는 못 사는 거야.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진정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돈을 모으거나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셋, 한도 정하기

아이들은 충동 소비를 하기 쉬워요. 예를 들면, 인형 뽑기가 취미인 아이는 자신이 모은 용돈 20,000원 중 15,000원을 인형 뽑기를 하는 데 써버릴 수도 있어요. 이때, 취미를 위해 쓰는 비용의 한도를 한 달에 5,000원까지 정하는 것이죠. 이 한도를 어겼을 때, 추가 용돈을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한도를 의식하며 소비할 때 자연스럽게 절제력도 기를 수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용돈 기입장을 쓰도록 강요하며, 어디에 썼는지 캐묻고, 검사하면 독립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기가 어려워요. 아이가 슬러시를 먹고, 뽑기를 하는 데 용돈을 썼다 말하면, 일단 그냥 웃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용돈의 사용처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요. ☺

더 나은 우리들의 삶을 만드는
건축사와 기자를 연기하다

배우 이기우

물과 공기처럼 하루 24시간 집과 세상의 소식들은
우리들의 삶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이러한 필수 불가결한 존재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건축사와 기자를 오랜 연기 내공을 가진
배우 이기우의 필모그래피를 통해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사진 네버다이엔터테인먼트 제공

건축으로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건축사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

한국 | 2017년 | 연출 김진원 | 극본 유보라 | 서주원 역
쇼핑몰 붕괴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문수와 강두. 가족을 잃고 큰 트라우마를 안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겨우 견디고 있는 두 남녀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

건축계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건축사

건축은 오늘의 일상을 담아내는 집이나 박물관과 같은 공간을 짓기에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 건축가는 의뢰를 받아 조형미,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계획하고 설계한다. 공사 현장에서는 설계도의 내용들이 시공 과정에 정확히 반영되는지 확인하며 품질이나 안전, 공사관리 등 관리감독 역할을 한다. 또,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 및 시공자들과 끊임없이 조율하고 협업해야 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건축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건축사가 되기 위해선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건축공학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대학 졸업 후 건축사 사무소에 입사하여 3, 4년의 경력을 쌓은 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건축사가 될 수 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 새로운 직업이 많이 등장하지만 변하지 않는 직업군이 있다. 건축가가 그렇다. 저출산·고령화, 높은 주택보급률로 주택 건축 시장은 줄어들지만,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와 여가 욕구의 증가,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건축에 대한 수요 증가로 건축사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 그 전망이 밝다.



출처 JTBC



출처 SBS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자 드라마 <훈자가 아니야>

한국 | 2004년 | 연출 김태성, 정성은 | 극본 박혜련, 서은정, 이영철 | 변기우 역
자신의 몸에 귀신이 빙의되는 동업이 귀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며, 지금이 바로 사랑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닫게 되는 로맨틱 성장 코미디 이야기다.

보이지 않는 사소한 진실까지 찾다, 기자

세계 최초의 신문은 1906년 프랑스에서 '특별하고 기념할 만한 소식들의 모음'으로 발행되었다. 오늘날은 신문을 포함한 뉴스, 잡지 등 다양한 형태로 기사가 발간되며 우리들의 눈과 귀, 발이 되어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달하는 직업이 기자다. 담당 업무에 따라 취재기자, 사진기자 등으로 구분되고 스포츠, 연예, 정치 등 분야에 따라 전문기자로 나뉘진다. 기자는 정치 현장, 범죄, 사고 등 사회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경찰서와 같은 정부 부처에 찾아간다. 또, 독자의 제보를 받거나 기사화될 만한 것을 찾아 심층적인 취재를 위해 기자회견에 참여하기도 한다.

기자가 되기 위해선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각 언론사 시험은 흔히 '언론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규모 채용이 없어 경쟁률이 높다. 신문사의 채용 과정은 신문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서류, 필기,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객관성이기에 어디에도 편향되지 않는 보도 자세를 가져야 한다. 평소에 어떠한 사회 현상을 보고 왜,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거해 나만의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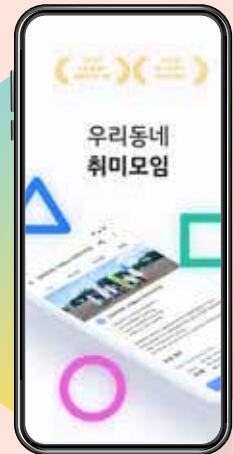
함께 즐겨요 도란도란 취미생활 소모임 취미, 소모임 애플리케이션

즐거움은 나눌 때 배가 되는 법!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보자. 취향저격 소모임과 원데이클래스,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을 추천해주는 유용한 앱을 모아봤다.

정리 편집실

소모임

마음이 맞고 취향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호회가 필요하다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추천
한다. 매주 1만 개가 넘는 정기모임이 이루어
지고 독서모임, 서핑모임, 자전거모임, 스터디
모임 등 문화 활동과 레저스포츠를 위한 다양
한 종류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참여하는 인원들의 전공과 직업도 다양해 경
험과 시야의 폭을 넓혀가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 취향 공동체를 우선
적으로 추천해주시 마음이 맞는 동네 친구들을
먼저 사귀어도 좋겠다.



소행성

‘소소하지만 행복한’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
공해 내 주변 소모임과 액티비티, 클래스 등을 소개해준다. 혼자서 하기엔 심심하고, 아무
나 붙잡고 하기엔 2% 아쉬운 활동들을 소행성의 취미 크루들과 함께 즐겨보자. 관심사
를 나눌 수 있는 글과 사진을 공유하거나, 1:1 혹은 모임 채팅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자
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소통할 수 있어 좋다. 내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공
유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체가 되어 소모임을 운영 할 수도 있다.



하비루트

나에게 딱 맞는 취미 클래스, 어디 없을까? 검색을 멈추면, 하비루트가 정답을 알려줄 차
레이다.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클래스와 숨어 있는 오프라인 클래스를 총망라해둔 알짜
배기 정보들을 하비루트,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종류만 많고 비슷비슷한 클래스
를 나열해둔 게 아닌 클래스 유형, 수업방식과 가격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선택할 수 있
는 검색 필터를 활용해 나에게 딱 맞는 취미 클래스를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로 맞
춤형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 위치기반 검색도 가능하니, 여행지에서 가볍게 즐길 클래
스 찾기도 문제없다.



남의 집

취향이 잘 맞는 너, 우리집에 놀러 올래? 모임을 주최하고 이끌어갈 ‘집 주인’, 즉 호스트
를 중심으로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앱 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은 가정집, 작업실, 동네가게 등의 모임 공간에 모여 공통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주최자의 성향에 맞게 다함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공연을 준비하거
나, 혹은 함께 영화나 책을 보고 감상을 나눌 수도 있는 애플리케이션, ‘남의 집’은 어디
든 취향이 모임 수 있는 곳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숨씨당

정기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취미활동이 부담스럽다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원데
이클래스는 어떨까. 관심이 있고 한 번쯤 배워보고 싶었던 수업을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
로 시작해볼 수 있다. 인기 있는 원데이클래스를 선정해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 ‘숨씨당’
에서는 할인은 물론, 최대 3%의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마음에 드는 원데이클래스를
찾았다면 적립 포인트를 활용해 여러 번 수강할 수도 있으니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다. 또
한 클래스를 직접 운영하고 싶다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인원을 모집할 수 있고, 클래
스 전용 캘린더를 이용해 쉽게 일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 ☎



끝없이 걷고 또 걷고 싶은 눈부신 섬, 거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거제도는
7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는 휴양지이다.
정처 없이 그저 걷기만 해도 천혜의 자연환경이 주는
행복감에 무르익는 눈부신 섬, 거제로 향했다.

글 박성하 사진 거제시청 제공



1

정글돔에서 경험하는 열대우림의 웅장함, 거제식물원

5월의 싱그러운 감성을 더해주는 거제식물원으로 향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돔형 온실이 시선을 압도한다. 온실돔 실내로 들어서면 놀라움은 배가된다. 마치 그물처럼 견고하게 얹혀 있는 천장은 7500여 장의 삼각형 유리조각을 이어 붙여 완성됐다.

열대우림의 생태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온실에는 300여 종 1만여 주의 열대식물과 무릉도원을 모티브로 조성된 석부작 계곡, 바위산과 같은 암석원, 10m 높이의 폭포, 빛의 동굴,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정글 동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돔 내부의 전경을 한 컷에 담을 수 있는 새 등지 포토존은 거제식물원의 '핫 플레이스'. 주말이면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관람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선다.

실내 온실 관람을 마쳤다면 이제 야외 정원을 둘러볼 차례. 수생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연못 주위를 산책하며 물 위로 비친 정글돔의 반영을 눈에 담아본다. 야외 생태정원에 앉아 햇살 아래 식물들이 주는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한다.

📍 거제식물원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595

푸른빛 바다를 한 모금, 바람의 언덕

남해의 푸른빛을 품은 언덕 위로 이국적인 풍차가 자리한 풍경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멀리서 바라본 바람의 언덕은 푸른색, 초록색, 붉은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고요하고 눈부신 풍경을 완성한다. 이제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 도장포 마을 선착장에서 시작해 나무 산책로를 따라 언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보면 멀리서 본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감상을 마주하게 된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으니 비로소, 바람의 언덕임을 몸소 실감하게 된다.

바람의 언덕은 지리적인 영향으로 해풍이 많아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 대부분이 키가 작은 편이다. 덕분에 시야에 가리는 것 없이 그야말로 탁 트인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언덕 위 풍차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다면 숲으로 이어진 계단으로 향해보자. 동백나무 군락지가 터널처럼 조성되어 있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초봄에는 활짝 핀 동백꽃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 바람의 언덕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14-47



2



- 1_ 바람의 언덕
- 2_ 거제식물원
- 3_ 외도 보타니아
- 4_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3

바다 위 환상의 정원, 외도 보타니아

외도 보타니아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 도장포 등의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방문할 수 있다.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해금강의 절경을 감상하며 항해를 즐기다 보면 어느덧 외도 보타니아에 다다른다. 보타니아(botania)는 식물을 뜻하는 단어 botanic과 utopia의 합성어로, 바다 위 식물의 낙원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유람선에서 내려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유토피아'라는 표현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동백나무가 섬 전체를 덮고 있으며 육지에서는 쉬이 볼 수 없는 선인장, 코코야자, 가자니아, 유카리, 용설란, 종려나무 등 3,000여 종의 아열대식물이 눈길을 끈다. 버킹엄 궁전을 모티브로 조성한 비너스 가든을 비롯해 이국적인 건축물과 조각상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마치 지중해의 어느 작은 마을을 옮겨놓은 듯하다. 곳곳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꽃향기 잔뜩 머금은 해풍의 감촉으로 보타니아에서의 순간들을 기억에 저장한다.

📍 외도 보타니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외도길 17



4

전쟁의 참상을 마주하다,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도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6·25전쟁 포로들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되돌아보며 평화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이다. 6.25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부터 설치된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북한군과 중공군 등 17만 명에 이르는 포로가 격리된 수용소였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포로들이 풀려나기까지 실제 사용된 건물과 기록물이 유적공원에 남아 있다.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입구로 들어서면 '기적의 배'로 불리던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지나 거대한 탱크 모형으로 조성된 탱크전시관이 자리하고 있다. 수용소의 관문인 M-P다리를 재현한 곳을 지나면 본격적인 포로 생활이 시작된다. 수용소 포로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당시의 사진과 모형, 영상 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롤러코스터와 짝라인을 결합한 복합시설 '아바타 포'를 비롯해 VR 체험관, 4D 영화관 등 전쟁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전쟁의 생생함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

📍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경남 거제시 계룡로 61



사랑이 꽃피는 병원

각색/그림 최승춘
icartoonist@naver.com



온 가족이 함께 운동하자! 2인 1포 스트레칭

도움 대구 만족정형외과 운동치료실

가정의 달인 5월, 가족과 함께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시간을 가져보자. 혼자 스트레칭을 할 때는 중심이 잘 잡히지 않아 휘청거리려도, 서로를 잡아주고 의지하면 힘든 동작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어떤 일이든 함께 호흡을 맞추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발목 잡고 뒤로 당기기

- ① 서로를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 ② 반대 손으로 발목을 잡고 무릎을 접는다.
- ③ 허벅지 앞이 약간 빠진 상태로 10초 간 유지한다.
- ④ 방향을 바꿔가며 3세트 반복한다.



능형근 스트레칭, 등 근육 늘리기

- ① 마주 보고 양발을 벌리고 선다.
- ②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 사이에 한 발을 놓고, 상대의 손목을 잡는다.
- ③ 둘 다 상체를 뒤로 젖혀 굽은 등을 펴준다.
- ④ 파트너를 바꿔 10초간 3세트 반복한다.



수축된 옆구리 근육 이완하기

- ① 파트너와 옆으로 한 발 떨어져 양발을 넓게 벌리고 선다.
- ②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한 손은 바닥, 반대 손은 파트너와 맞잡을 수 있게 높이 올려 옆구리를 늘린다.
- ③ 이때 바닥을 짚은 쪽의 옆구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유지한다.
- ④ 방향을 바꿔 3세트 반복한다.



부드러운 햄스트링을 위한 스트레칭

- ① 서로의 발을 맞대고 앉아 손을 잡고 등,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펴준다. 이때 무릎은 세워준다.
- ② 손을 꼭 잡은 채로 당겨주며, 한쪽 발바닥을 맞대 높이 들어 무릎을 펴 준다.
- ③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게 유의하며 서로 당기면서 10초 간 유지한다.
- ④ 발을 바꿔 3세트 반복한다.

독자퀴즈 QUIZ

동물을 방치하거나 학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동물을 구조하고, 상황에 따라 동물 학대자를 경고하거나 고발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는 직업은?

- ① 반려동물 장의사 ② 시설경비원 ③ 동물보호보안관 ④ 곤충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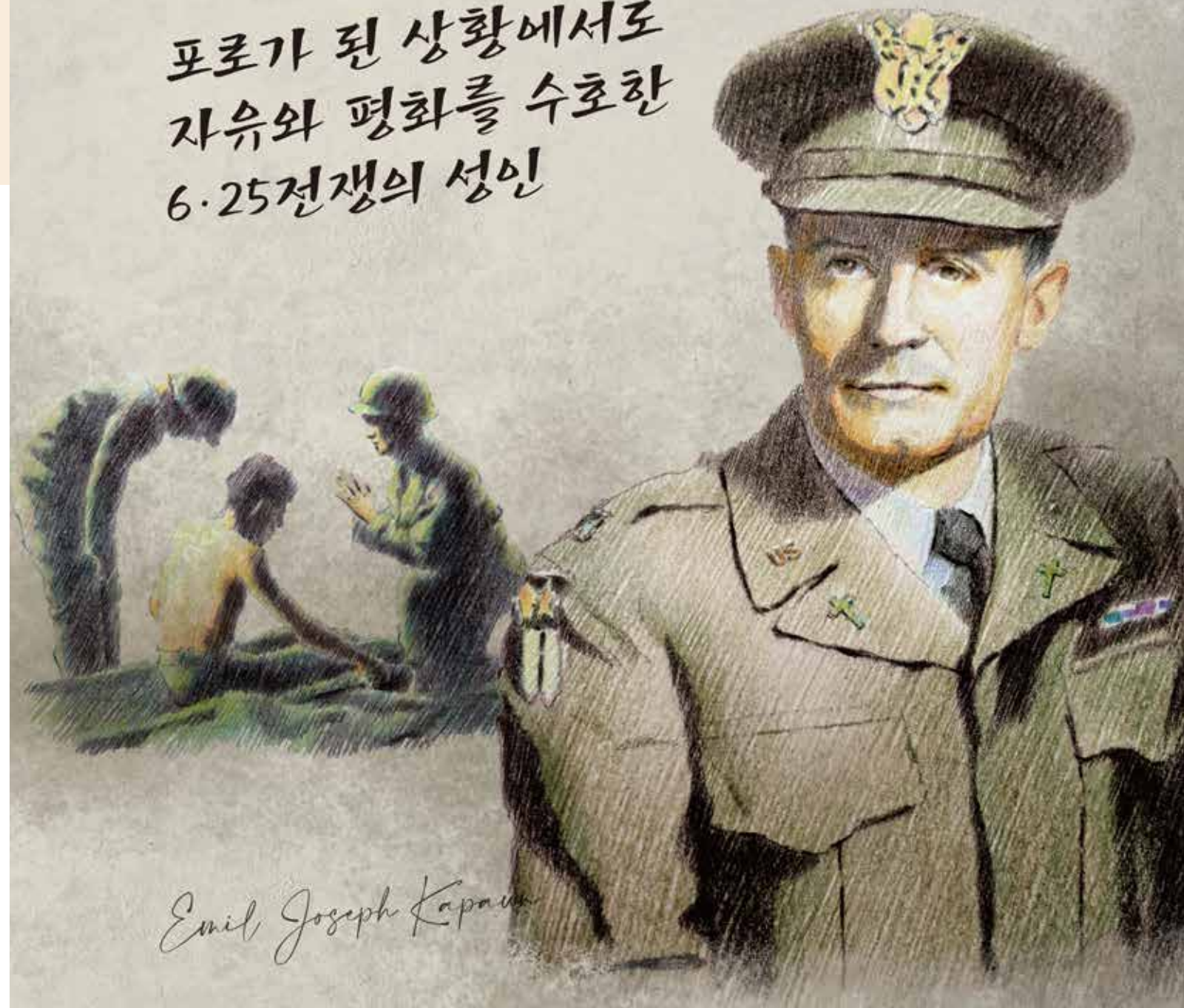
※ 5월 20일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주세요 (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3년 4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서우석(경기 김포) 정병채(서울 도봉)
신학섭(경기 의정부) 진봉균(서울 관악)
이동욱(서울 노원)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금을 보내드립니다.
※ 4월호 정답 ① 나무의사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6·25전쟁의 성인



Emil Joseph Kapon



미국 군종 신부(육군 대위)
에밀 조세프 카폰
1916. 4. 20. - 1951. 5. 23.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16년 미국 캔자스에서 태어난 카폰 신부는 1950년 7월 군종 신부로 파병되어 당시 미군을 포함한 UN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치열한 전선을 오가며 군종 활동을 하였다. 1950년 11월 소속 부대인 제8기병연대가 중공군의 공격에 포위되어 후퇴하자 카폰 신부는 자발적으로 전류하여 전류병력을 위해 군종 활동을 하였으며, 부상자들을 수습하였다. 그 후 몇 차례나 중공군의 포위망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부상자들을 돌보다 전쟁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이송된 후에도 전우들을 위해 식량과 의약품들을 나눠주는 등 군종 신부로 사명을 다하던 중 1951년 5월 23일 하늘나라로 떠났다. 전쟁 중에도 인류애를 실천한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미국 정부는 2013년 4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7월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